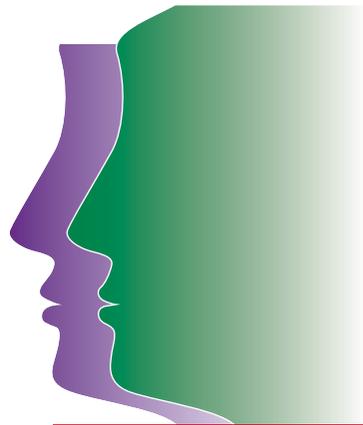


제26주년 UN세계평화의 날 기념

2007 Peace BAR Festival



Peace BAR Festival

Contents

취 지

엠블럼 및 로고

개 요

행사구성

종합일정

프로그램 제26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World Civic Forum 준비회의

경희공동체 심포지움

경희 학생포럼

경희자원봉사축제

2007 Peace BAR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26th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light purple or lavender color. It features a faint, stylized map of the world in the background. Overlaid on this map are numerous white doves in flight, scattered across the globe, symbolizing peace. The doves are depicted in various stages of flight, with their wings spread. The overall aesthetic is clean and symbolic.

2007 Peace BAR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26th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취 지

‘고독한 주체’에서 ‘상호주체적 인간’으로

인간은 행복한가? 인류가 문명과 사회를 발전시켜온 것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하고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물질문명은 ‘풍요로운 삶’과 ‘문명의 위기’라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현대문명의 아이러니는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서 수많은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문명은 근대를 ‘포월包越’하는 과정에서 창출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감을 갖되, 못생명에 대한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오래된 지혜’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새로운 인간과 문명’을 키워드로 삼아 제26주년 UN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2007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합니다.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학문세계의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를 주제로 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인간시대 -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BAR - 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 지구촌 인류사회를 전망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엠블럼 및 로고

■ 엠블럼



■ 로고

*B*eautiful

*A*ffluent

*R*ewarding

개요

2007 Peace BAR Festival은 2007년 11월 7일(수)부터 11월 9일(금)까지 경희대학교와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며, UN 관계자, 국내외 학자, 대학생, 일반인 및 지역사회 시민 등이 참여한다.

행 사 명	제26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07 Peace BAR Festival
주 제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Transformative Challenges: In Search of New Humanity and Community
일 시	2007년 11월 7일 (수) ~ 9일 (금)
장 소	경희대학교, 신라호텔
참 가 대 상	UN 관계자, 국내외 학자, 대학생, 일반 참가자
주 최 / 주 관	경희대학교 / 네오르네상스문명원
후 원	중앙일보사

행사구성

2007 Peace BAR Festival은 국제학술회의, World Civic Forum 준비회의, 경희공동체 심포지움, 경희 학생포럼, 경희자원봉사축제 등으로 구성된다.

제26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World Civic Forum 준비회의
- 전환적 도전: WCF의 비전과 철학

경희공동체 심포지움
-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경희자원봉사축제
- 경희사회공헌의 현재와 미래

경희 학생포럼
- 21세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소통과 연대

2007 Peace BAR Festival

종합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11월 7일 (수)	10:00~17:00	경희 학생포럼		경희대 청운관 (B117)		
11월 8일 (목)	10:00~12:00	개회 및 전체회의 1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13:30~15:10	전체회의 2				
	16:30~18:30	경희공동체 심포지움		경희대 본관 (2층 대회의실)		
11월 9일 (금)	09:30~11:30	WCF 준비회의: 전체회의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13:00~14:40	전체회의 3		WCF 준비회의: 라운드테이블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15:00~16:40	경희자원봉사축제	전체회의 4		경희대 청운관 (B117)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11월 10일 (토)	10:00~12:00	WCF 준비회의: 실무그룹회의		경희대 본관 (2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1. 제26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2. World Civic Forum 준비회의

- 전환적 도전: WCF의 비전과 철학

3. 경희공동체 심포지움

-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4. 경희 학생포럼

- 21세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소통과 연대

5. 경희자원봉사축제

- 경희사회공헌의 현재와 미래



UNESCO PRIZE FOR PEACE EDUCATION
(1993)

주 제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취 지 '인간은 존재하는가?' 르네상스가 인간을 재발견한 후 인간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성과 문화의 발달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기획하며 자아실현을 위한 역사창조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연 창조적 주체인가? 현대인은 자기 자신에 매몰되어 초월성을 품고 있는 '위'를 올려다보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옆'도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현대인은 고독과 단절 속에서 새로운 인류미래를 구상할 여력이 없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대인은 '잃어버린 지혜'를 현재화해야 한다. '위'를 올려다보며 우주적 신비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소통해야 한다. 새로운 인간은 열린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21세기를 열어 갈 신인류는 *homo reciprocus*인 것이다.

신인류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창조적 만남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다.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놓고 열리는 제26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는 21세기 '평화와 공영'의 신문명을 창달할 새로운 시민상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일 시 2007년 11월 8일 (목) ~ 9일 (금)

장 소 신라호텔

주 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문명원

후 원 중앙일보사

프로그램

1. 제26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회

2007년 11월 8일 (목) 오전 10:00 ~ 10:20 /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사 회 - 김 의 영 (경희대 국제교류처장)

개회선언 - 김 여 수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문명원장)

환 영 사 - 조 인 원 (경희대 총장)

전체회의 1 문화다양성 시대의 이성

2007년 11월 8일 (목) 오전 10:20 ~ 12:00 /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서구적 전통에서 '문화'의 개념은 교육, 계몽, 합리성 등 근대성의 개념과 맞물려 이성적이고 규범적인 틀 속에서 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는 '다양한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과 표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열린 문화 개념은 과거의 잣대로는 포착하기가 어렵다. 현대의 문화는 그 동안 서구 근대가 무시하고 배제해온 인간의 감성적 영역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다원성의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이성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세션에서는 감성을 바탕으로 한 신문화가 새로운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한다.

사 회 - 김 여 수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문명원장)

발 표 - Wolfgang Welsch (Jena대학 교수, 철학, 독일)

이 남 인 (서울대 교수, 철학)

토 론 - 박 인 철 (경희대 교수, 철학)

이 동 수 (경희대 NGO대학원장, 정치학)

전체회의 2 미학, 소통, 그리고 인성

2007년 11월 8일 (목) 오후 13:30 ~ 15:10 /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르네상스와 근대를 지나면서 미학은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당해왔다. 그러나 그리스의 비극과 폴리스와의 관계, 칸트의 미학과 근대 민주주의와의 연관, 그리고 최근의 탈근대주의와 평등과의 친연성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학은 언제나 공동체의 발전과 인간성의 재발견이라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거대담론이 종말을 고했다고 언급되어지는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미학적 경험은 여전히 공동체의 생존, 특히 지구적 차원의 민주적 인류 공동체를 모색하는 데 있어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실천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세션의 의도이다.

사 회 - 허 우 성 (경희대 교수, 철학)

발 표 - Jerome Bindé (UNESCO 예측국장, 사회학, 프랑스)

권 택 영 (경희대 교수, 영문학)

토 론 - 김 종 갑 (건국대 교수, 영문학)

유 정 완 (경희대 교수, 영문학)

프로그램

1. 제26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전체회의 3 공동체와 삶에 대한 성찰

2007년 11월 9일 (금) 오후 13:00 ~ 14:40 /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21세기의 존재론적 상황은 공동체적 존재인 인간에게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인간은 계속해서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정체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의 본질과 경계는 어떻게, 또 어디까지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 더불어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 위기와 관련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이 주제들은 21세기 인간의 시민적 가치와 덕목을 둘러싼 테제와 불가분하게 연관된다. 이 세션은 인간, 공동체, 자연, 생명 등과 같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봄으로써, 세계시민사회를 형성하는 토대인 시민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새롭게 조망한다.

사 회 - 김 홍 우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명예원장, 정치학)

발 표 - Rob Stones (Essex대학 교수, 사회학, 영국)

최 재 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생명과학)

토 론 - 송 재 룡 (경희대 교수, 사회학)

유 정 칠 (경희대 교수, 생물학)

전체회의 4 국가 정체성과 시민사회

2007년 11월 9일 (금) 오후 15:00 ~ 16:40 /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21세기 지구시민사회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와 인종을 뛰어 넘어 전 세계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시민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시급하다. 현대인의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구별 짓기의 무의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민적 가치에 기초한 지구공동체의 건설은 가능한가? 문화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다양한 경계를 가로질러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보편가치는 무엇인가? 이 세션에서는 근대 민족국가의 고착화 과정에서 형성된 시민성의 개념과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통해 지구시민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시민적 가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사 회 - 김 용 학 (연세대 교수, 사회학)

발 표 - Bob Jessop (Lancaster대학 교수, 사회학, 영국)

John Ikenberry (Princeton대학 석좌교수, 정치학, 미국)

토 론 - 이 화 용 (경희대 교수, 정치학)

임 정 근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사회학)



주 제 전환적 도전: WCF의 비전과 철학

취 지 경희대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통해 인류의 보편가치 구현이라는 설립정신에 바탕해 지난 58년간 학술적,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경희대는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면서 '평화와 공영'의 미래문명을 향해 전 지구적 협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인 World Civic Forum (WCF, 세계시민포럼)을 2009년 UN경제사회국과 공동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WCF는 인류적 차원의 평화, 발전, 안보라는 공통의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 국가들의 국내외적인 시민참여 과정을 공고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선택과 전략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목 적

- 제26주년 UN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와 병행하여 WCF 준비회의 개최
- 국제기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의 WCF 비전, 철학,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과 논의의 장 마련
- 2009년 WCF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

구 성

- 전체회의
- 라운드테이블
- 실무그룹회의

일 시 2007년 11월 9일 (금) ~ 10일 (토)

장 소 경희대학교, 신라호텔

주 관 경희대학교 국제교류처



전체회의

2007년 11월 9일 (금) 오전 9:30 ~ 11:30 /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이 세션에서는 국제기구, 대학,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WCF 2009의 이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사 회 - 김 여 수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문명원장)

메 세 지 - Zukang Sha (UN 경제사회국 사무차장)
(대독: 조명수, UN 거버넌스센터 원장)

기조연설 - Renate Bloem (UN NGO협의체 CONGO 의장)
Kumi Naidoo (CIVICUS 사무총장 겸 대표)
박 원 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프로그램 2. World Civic Forum 준비회의

라운드테이블

2007년 11월 9일 (금) 오후 13:00 ~ 16:40 /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룸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학 등의 multi-stake holder 대표자들이 경희대준비위원회가 작성한 aide-memoire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특정 주제에 관하여 아이디어 페이퍼를 발표한다.

사 회 - 김 의 영 (경희대 국제교류처장)

Renate Bloem (UN NGO협의체 CONGO 의장)

발 표 - Juan Carlos Brandt (UN 사무국 공보실 비정부기구 과장)

Anselmo Lee (FORUM-ASIA 사무총장)

Gabriele Mazza (유럽평의회 고등교육국장)

Hanifa Mezoui (UN 경제사회국 비정부기구 과장)

Bruce Muirhead (Eidos 설립자 겸 소장)

Kumi Naidoo (CIVICUS 사무총장 겸 대표)

Frank Plantan (펜실베니아대 국제프로그램 공동 책임자)

김 용 학 (연세대 교수)

김 혜 경 (지구촌 나눔운동 사무총장)

송 세 련 (경희대 교수)

유 대 중 (외교통상부 UN과장)

염 재 호 (고려대 교수)

조 명 수 (UN 거버넌스센터 원장)

실무그룹회의

2007년 11월 10일 (토) 오전 10:00 ~ 12:00 / 경희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실무그룹회의에서는 이번 회의의 참여 인사들이 추후 WCF의 준비일정 및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3. 경희공동체 심포지움

주 제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취 지 경희대학교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기본 사명에 충실한 동시에,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통을 유지, 발전시켜왔다. 이 같은 경희의 역사는 21세기 대학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예견 한 것이기도 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경희가 이룩해온 학술적 성과와 인류애를 향한 노력을 계승하고 '학문과 평화의 전당'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적, 문명사적 과제가 놓여 있다. <경희공동체 심포지움>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경희공동체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경희의 새로운 미래, 즉 '세계 속의 경희, 경희 속의 세계'를 전망하는 토론 마당이 될 것이다.

구 성

<p>1부: 미래 사회와 대학패러다임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이념: 남 기 원 (중앙박물관 연구원) • 21세기 대학 패러다임: 유 영 학 (교육대학원 교수) • 국내외 대학의 사례: 우 기 동 (문과대학 철학과 교수) <p>3부: 종합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토론 / 릴레이토론 / UCC 토론 	<p>2부: 경희공동체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서울·국제) 총동문회
---	---

일 시 2007년 11월 8일 (목) 오후 16:30 ~ 18:30

장 소 경희대 본관 2층 대회의실

주 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문명원



주 제 21세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소통과 연대

취 지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의 주요 원인은 세계화이다. 냉전이 종식되는 한편, 과학기술은 가속적으로 발달되어 현대사회는 물질적 번영과 함께 지구적 차원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함께 시작된 세계화는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인간은 소외되고 인간 사이의 소통과 연대의 가능성은 갈수록 줄고 있다. <경희 학생포럼>은 사회성원과 영역간의 소통과 연대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추구되어야 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상을 그려본다.

구 성

전체 회의 I: 기업과 지역사회의 소통

- 사회 - 박 은 혜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 발표 및 토론 - 오 영 수 (볼런티어 21 사업국장)
이 경 현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팀 간사)

특별강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 사회 - 이 주 원 (경희대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 강연 -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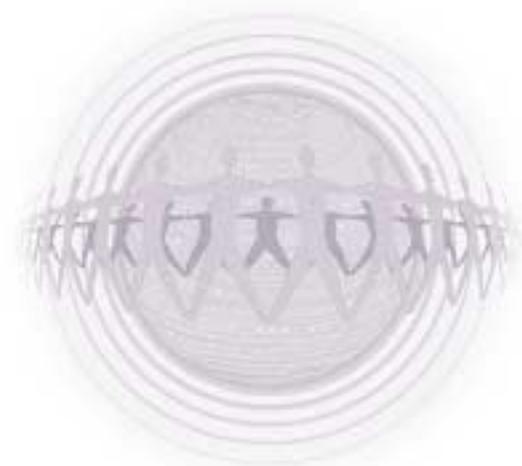
전체 회의 II: 대학과 지역사회의 소통

- 사회 - 김 주 현 (경희대 문과대학 영어학부)
- 발표 및 토론 - 손 석 환 (푸른시민연대 전임 활동가)
김 윤 식 (경희대 학생자원봉사단장)
진 주 원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국제학부)

일 시 2007년 11월 7일 (수) 오전 10:00 ~ 17:00

장 소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

주 관 네오르네상스 프린티어



5. 경희자원봉사축제

주 제 경희사회공헌의 현재와 미래

취 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며 경희 구성원들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결집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세계적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기존의 다양한 사회봉사를 우리 대학의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대학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대학,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는 경희의 미래를 모색한다.

구 성

- 경희자원봉사네트워크 발대식
- 경희 사회공헌 홈페이지 시연
- 사회공헌 활동 우수사례 발표
- 전시·축하공연

일 시 2007년 11월 9일 (금) 오후 15:00 ~ 16:40

장 소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

주 관 개교 60주년 사회공헌위원회, 네오르네상스문명원



● UN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소개

경희대학교는 1981년 UN 제36차 총회에서 제정된 'UN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국제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82년 시작된 이래 2007년 현재 제26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학술회의의 연도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982 *Crisis and Peace in Contemporary World.*
- 1983 *World Peace: Is It Possible?*
- 1984 *World Peace Through the UN.*
- 1985 *U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 1986 *Search for Causes of International Conflicts and Ways to Their Solutions.*
- 1987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1980s.*
- 1988 *The North-East Asian Era and the Rol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21st Century.*
- 1989 *Peace Beyond the East-West Conflict: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World Peace in the 1990s.*
- 1990 *The Search for a New World Peace Order with Reference to the Changes in the East-West Relations.*
- 1991 *New World Order: The Post-Ideological World in the 21st Century.*
- 1992 *Democracy and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t Century.*
- 1993 *Peace in the Northeast Asia: Toward Greater Regional Cooperation.*
- 1994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 1995 *Tolerance,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